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장기요양요원 지원 성금 전달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이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과 돌봄 현장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역사랑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박춘원 은행장 정원호 노조위원장)은 8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지역사랑성금 4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전북은행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조성됐다. 봉사단은 지난 4월 총 6000만원 규모의 '2026년 지역사랑성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15개 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날 첫 번째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북특별자치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직무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 치유를 지원하고, 돌봄 현장의 따뜻한 순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찰라!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 사진 공모전' 사업을 제안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지원을 통해 센터는 요양보호사의 날을 기념해 지난 7일 열린 '장기요양요원 성장세미나' 행사에서 장기요양요원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을 담은 사진 우수작품 16점을 선정해 시상하고 전시회를 개최했다. 사진전은 장기요양요원들의 헌신을 알리고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행사로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원호 전북특별자치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장과 정원호 전북은행노동조합 위원장 노조 간부, 정영민 전북은행 전북특별자치도청지점장 등이 참석해 장기요양요원들을 격려했다. /오상근 기자



한화에너지 군산공장, 군산시와 복지 협약

한화에너지(주) 군산공장이 8일 군산시와 '2026 희망나눔 지역복지' 협약을 맺고, 올해 복지 사업비 4,500만원을 후원했다.

이번 협약은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후원금은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사랑의 공부방' 조성, 기업연합 봉사활동, 기초 소방시설 보급, 지역 사회 복지시설 보수 및 물품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복지 사업에 쓰인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후원을 더욱 확대해 새만금초등학교 요리 프로그램 지원, 소룡초등학교 에너지 교실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향후 새만금초등학교 운동회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한화에너지(주) 군산공장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13년부터 14년째 나눔을 이어오며, 지금까지 모두 4억 4,300만원을 기탁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남원 도동동, 의료용 전동침대 설치 지원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는 1일(가)구 찾아가는 소동행의 일환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의료용 전동 침대를 설치 지원했다.



해당 가구는 뇌병변 심한 장애를 앓고 있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으로, 기존 침대의 노후화로 안전사고의 위험도 큰 것으로 상담 간 확인 이에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 협의체와 협력해 해당 가구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

대상자 부모는 "평소 몸을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동침대를 지원받게 되어 큰 도움이 된다"며 "직접 찾아와 어려움을 살펴주고 필요한 지원까지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본사내방

▲정승주 김제시장

전주시니어클럽 '인생이야기기록작가단' 이유경 작가의 특별한 여정

'내 인생의 그림, 누군가의 삶을 기록하다'

"나의 그림 속엔 아버지의 마음 간 마음이 숨 쉬고 있습니다." 전주시니어클럽에서 '인생이야기 기록작가단'으로 활동 중인 이유경 작가가 어르신들의 삶을 기록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그려가고 있다.



2026년 전북 지역에서 시행된 '인생이야기기록작가단'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문 교육을 받은 참여자가 어르신들의 생애를 인터뷰하고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 경험과 지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는 활동이다.

이유경 작가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 부터 물려받은 예술적 감각과 사랑을 토대로 현재 수혜자 어르신들의 마음을 화폭과 글로 담아내고 있다. 그는 "처음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수혜자 어르신들의 굴곡진 삶 속에서 보물창처럼 동글게 빛나는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작가는 "집지민은 많은 인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어르신들의 슬픔과 기쁨을 마주하며, 나 또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나를 만나고 있다"며 "나의 글과 그림이 어르신들의 삶을 위로하고 전주시니어클럽에 웃음꽃을 피우는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처음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으나 이제 어르신들의 삶 속에서 희망 발견"

"제 글·그림이 어르신들의 삶을 위로하고 전주시니어클럽에 웃음꽃 피우는 매개체로"

평생 꿈과 희망을 색칠하며 살아온 이유경 작가에게 '인생이야기기록작가단' 활동은 단순한 노인 일자리를 넘어 자신의 내면에 있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타인에게 나누는 '인생의 꽃밭'을 가꾸는 일이다. 그의 기록 작업은 앞으로도 사계절이 변하듯 다양한 삶의 풍경을 담아내며,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성숙한 인생의 지혜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기자



김희수 도의장, 축하 화분 아름다운가게 전달

제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김희수 의장이 당선축하 화분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

김 의장은 8일 도의회 의정실에서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 김진형 공동대표와 오현주 전북본부장에게 화분 150여 개를 전달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축하의 마음이 담긴 화분을 더욱 의미있게 활용하는 것이 보내주시는 분들의 뜻을 함께 나누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도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형 공동대표는 "기부받은 화분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새로운 나눔의 가치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판매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아름다운가게는 기부받은 화분을 판매한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더 큰 미래 향해' ... 전주시설공단, 창립 18주년 기념식

이연상 이사장 "시민 신뢰가 최우선 가치"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창립 18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발전취를 돌아보고, 더 큰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단은 8일 월드컵경기장 3층 레드카페 광장에서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8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전주시의회 최명권 행정위원장과 김윤수 부위원장, 양영환 의원, 이수진 의원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공단의 기념일을 축하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지난 18년 동안 시민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오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주시 또한 공단이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연상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변화와 도전을 마주하면서도 시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한 걸음씩 성장해 왔다"며 "18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더 빛나는 미래를 향해 한창게 나가자"고 말했다.

공단은 시민을 중심에 두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여러 성과를 거뒀다.

2008년 7월 8일 호남 최초의 시설관리 전문공기업으로 출범한 이래 체육, 장사, 교통 등 7개 분야 33개 사업을 수행하며 시민 생활 밀착 서비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온 공로로 지난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또 전국 100여개 공기업의 협의체인 한국지방공기업협회의 회 의출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회장기관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공단은 민선 9기 시장 방향을 함께 실현하는 핵심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시 특별 도시 실현을 위해 AI 기반 시설관리와 스마트 서비스 고도화로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고, 시민 돌봄 책임 도시를 위해 교통약자 지원과 사회공헌, 지역 상생 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문화와 관광, 스포츠가 어우러지는 아시아 5대 문화산업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만든다는 게 공단의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한국실업불려연맹, 남원시에 홍삼음료 기탁

남원시(시장 양종모)는 지난 8일 한국실업불려연맹(회장 황윤하)이 관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 홍삼음료 50박스(환가액 3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7일부터 14일까지 남원 숲별리장에서 개최되는 '한국실업불려연맹 전국 실업불려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불려연맹의 기부 선행은 지난 2024년 7월 4일 저소득층을 위한 물티슈 1,000개 기부로 시작됐으며, 2025년 7월 15일에도 물티슈 110박스를 기탁하는 등 매년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사랑의 헌혈 행사 진행



남원소방서는 지난 7일,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근무 중인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비번인 대원들까지 소방서를 방문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하며 훈훈함을 자아냈다.

또한 지역 사회 재능 기부와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남원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도 함께 소매를 견어붙이며 혈액 나눔에 힘을 보태 그 의미를 더했다.

박성준 구조대장은 "재능 헌혈뿐만 아니라 헌혈을 통해서도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마음 대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이 기꺼이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금민농협, 영농형 태양광·햇빛소득마을 사업설명회

금민농협(조합장 최승운)은 지난 7일 금민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 소득마을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 농업인 약 180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방향, 설치 기준, 운영 방식 등 농가 소득 창출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의는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김찬환 회장과 목진광 기술이사가 함께하여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의 국내 추진 현황과 제도변화, 경제성, 향후 정책 방향 및 재배농산물들을 설명했으며, 참석 농업인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최승운 금민농협 조합장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의소득 창출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함께 실현하는 미래형 농업인 소득 창출 모델인만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교복 입고 되찾은 청춘, 어르신들의 액자에

군산자본센터, '2026 빛나는 청춘사진관' 성료

군산자본지원센터(이사장 김민재)는 '2026 빛나는 청춘 사진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7월 8일 육산면 대령로당을 비롯한 10개소를 방문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 300여 명에게 추억이 담긴 액자와 키링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추진된 '2026 빛나는 청춘사진관'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운영됐다.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지역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화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교복을 입혀드리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잊고 자냈던 청춘의 기억을 되새기는 특별한 시간을 선물했다.

센터는 촬영한 사진으로 액자와 키링을 제작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전달하며 소중한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이 더욱 뜻깊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데에는 군산 철길마을에서 '교복은 여기서'와 '연날사진관'을 운영하는 김재학 대표의 적극적인 재능기부와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



김재학 대표는 모든 촬영 일정에 함께하며 교복 대여부터 사진 촬영, 인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다. 또한 어르신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촬영을 이끌었으며,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모습까지 카메라에 담아 사업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군산자본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와 나눔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주수목원, 시민과 함께 멸종위기 식물 '전주물꼬리풀' 복원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시민들과 함께 전주의 이름을 딴 멸종위기 식물인 '전주물꼬리풀' 복원에 나섰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지난 7일 전주수목원 생태습지원에서 이성운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물꼬리풀 300본을 식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재 행사는 전주에서 처음 발견된 지역 상식 식물을 원래의 고장에 다시 복원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시민들과 함께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수목원은 지난 2016년 제주 여미지식물원으로부터 전주물꼬리풀 10본을 분양받아 증식을 이어왔다. /오상근 기자

